

윤리와 사상 논술형 수행평가

전주 영생고등학교 2학년 ()반 ()번 이름 ()

※ 다음 제시문을 읽고 주어진 논제에 대한 논술문을 작성하시오.

갑: 안연이 인(仁)에 대해 질문하자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사욕을 이기고 예(禮)로 돌아가는 것이 곧 인이다. 하루만이라도 사욕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면 천하가 모두 인으로 귀결될 것이니, 인을 실현하는 것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지 어찌 남에게 달려 있겠는가?” 이에 안연이 “그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하고 청하자, 선생께서는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도 말고,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 것이며,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들은 안연은 “제가 비록 어리석고 모자라지만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논어』

을: 하늘에는 일월보다 밝은 것이 없고, 땅에는 물불보다 밝은 것이 없으며, 사물 중에는 주옥보다 밝은 것이 없고,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의(禮儀)보다 밝은 것이 없다. …중략… 사람의 수명은 하늘에 달려 있고, 국가의 운명은 예(禮)에 달려 있다. 임금 된 자가 예를 숭상하고 현자를 존중하면 제대로 된 왕 노릇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을 중시하고 백성을 사랑하면 패자(覇者)는 될 수 있고, 이익을 좋아하고 속임수를 많이 쓰면 위태롭게 되며, 권모를 일삼고 명분을 뒤엎으며 음험하면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 『순자』

병: 상덕(上德)은 덕으로 들어나지 않기 때문에 덕이 있다. 하덕은 덕을 잃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덕이 없다. 상덕은 무위(無爲)이므로 작위가 없다. 하덕은 유위(有爲)이므로 작위가 있다. 상인(上仁)은 유위이나 무엇을 가지고 하려 하지는 않는다. 상의(上義)는 유위이며 또한 무엇을 가지고 하려 한다. 상례(上禮)는 유위일 뿐만 아니라 그에 응하지 않으면 팔을 걷어붙이고 잡아끈다. 도(道)가 상실되자 덕이 나오고, 덕이 상실되자 인이 나오고, 인이 상실되자 의가 나오고, 의가 상실되자 예가 나온다. 무릇 예라는 것은 충(忠)과 신(信)이 희박해진 것으로서 혼란의 시작이다. 『도덕경』

<논제 1> 제시문 속 ‘예(禮)’에 대한 사상이 갑, 을, 병의 주장들을 요약하고, 사상이 ‘병’의 입장에서 사상이 ‘갑’과 ‘을’의 견해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시오.

- ※ 조건 ① 반드시 사상이 갑, 을, 병의 이름을 명시할 것
② 사상이 갑, 을, 병과 관련된 핵심 개념을 1가지 이상 각각 활용할 것
③ 띄어쓰기 포함 600자 내외로 작성할 것(제시한 분량의 20% 이내의 차이가 있는 경우 미충족으로 간주)

<논제 2> 제시문 속 사상이 갑, 을, 병의 견해 중에서 본인은 어떤 견해가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오늘날 각종 사회 현상과 사회 문제를 예시로 들어 논술하시오.

- ※ 조건 ① 반드시 사상이 갑, 을, 병의 이름을 명시할 것
② 본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상이와 관련된 핵심 개념을 1가지 이상 활용할 것
③ 오늘날 사회 현상과 사회 문제를 연관지어 1가지 이상 예시로 들 것
④ 띄어쓰기 포함 600자 내외로 작성할 것(제시한 분량의 20% 이내의 차이가 있는 경우 미충족으로 간주)

윤리와 사상 논술형 수행평가

전주 영생고등학교 2학년 ()반 ()번 이름 ()

[illegible]

윤리와 사상 논술형 수행평가

[illegible]

600

30

(인)